

# 제주형 재난생활지원금 어제 첫 지급

### 도, 2230세대 총 8억원 지급... 현재 신청접수중 1인 가구 784세대로 최대... 4인 이상은 660세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첫날 2230세대가 지급 결정을 받았다. 액수로 따지면 약 8억원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u.go.kr/index.htm>)에 총 11만8011명이 방문, 4618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어 실시간 심사를 벌인 결과 2230세대가 지급 결정돼 21일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됐다.

2230세대 가운데 1인 가구는 784세대(1억5680만원), 2인 가구 484세대(1억4520만원), 3인 가구 391세대(1억5640만원), 4인 이상 660세대(3억3000만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노형동, 이도2동, 연동, 애월읍, 일도2동, 아라동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서귀포시는 남원읍, 대정읍, 성산읍, 동홍동, 대천동 순이었다. 제주도는 행복드림포털 외에도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전화 상담을 벌이고 있다. 또 27일 시작되는 읍·면·동 현장 접수에 앞서 상담 직원을 미리 배치해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출생연도 5부제(5월 8일까지)에 따라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로 끝나는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7일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진다.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가 진행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21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원희룡 지사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심사가 가능하지만,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번거롭더라도 '건강보험특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가 지급 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 주 3회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주 3회(제주시 동·서부 및 서귀포 지역) 전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예방활동 장소는 법원과 연동 신시가지, 서귀포 중앙로터리, 삼무공원, 탐동공원 등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12개 구역에서 진행된다. 중점 활동 내용은 폭행, 금품갈취 등 소년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학교 흡연, 음주 등 비행행위에 대한 선도활동도 포함한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어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주기 귀가 독려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온라인 교육시대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 및 학생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차별화된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광치기해변서 '찰칵' 21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주변 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꼭 처리해야"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책회의서 강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20대 국회내에 제주4·3특별법 개정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겸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39일 남았다. 긴급재난지원금, 'N번방 3법', '제주4·3 특별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 처리만은 꼭 해내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과 20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린다. 20

대 국회 임기가 39일 남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지급하자. 'N번방 3법'과 '제주4·3 특별법 개정', '일하는 국회법' 처리만은 꼭 이번엔 해내자"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것만은 꼭 해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4·3 추도식 장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굳게 약속한 바 있다. 약속대로 조속히 행안위를 열어 4·3 특별법

을 심사·의결하고, 20대 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 제주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지 변경

### 개교 시기도 2~3년 연기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 '서부중학교'의 설립 예정지가 바뀌었다. 개교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2~3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서부중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조건부 승인(외도동 인접지로 학교 위치 변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설립 부지를 확정, 토지 매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토지주와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3월 서부중 설립 예정지를 변경, 추진키로 하고 외도동 내 다른 토지를 모색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설립 예정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사전 매도 승낙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80% 가량이 승낙한 상태

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추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검토와 제주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주의 사전 매도 승낙과 교육환경평가 등이 완료된 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토지매입, 설계와 공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1일 "학교설립 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한다면 2022년 3월로 계획된 개교 시기는 2~3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사회의 격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개교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코로나19 위기 속 해고 금지 보장하라"

### 민노총 21일 도청 앞 회견

민노총 제주분부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해고 금지와 생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 휴직 및 휴업 상태인 노동자가 1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정은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해고 금지, 종고용 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 대응을 전면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을 현장 순회하고 있는 김명환 민노총 위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 휴직 및 휴업 상태인 노동자가 1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정은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해고 금지, 종고용 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 대응을 전면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을 현장 순회하고 있는 김명환 민노총 위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고 휴직 및 휴업 상태인 노동자가 1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정은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식기자

## 신대로 가로수 향토수종 후박나무 식재

가로수로 식재된 지 40년이 넘으면서 아름답던 경관을 자랑하던 신제주 지역 담팔수가 고사현상으로 인해 향토수종인 후박나무로 교체된다. 제주시는 지난 20일부터 연동 KCTV 사거리에서 옛 마리나호텔 사거리로 이어지는 신대로 일대 담팔수를 제거한 자리에 후박나무를 심는 가로수 보완식재 작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대로 일대에는 신제주 건설계획에 따라 1979년 무렵부터 심기 시작한 제주 자생종인 담팔수 130여그루가 가로수로 조성돼 도심속 허파 같은 도시숲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담팔수는 국내에서 제주에만 자라는 희귀목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파이토플라즈마(Phytoplasma) 병



원균 감염에 의한 위황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사목 4그루를 베어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0여그루가 사라졌다. 신대로의 일부 담팔수에서도 고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대체 수종을 놓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후박나무를 심기로 하고, 굴착기를 동원해 베어낸 담팔수 그루터기에 식재 작업을 시작, 5월 하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윤형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애월리 순메밀 막국수 4월 25일(토) 오픈**

**저희 애월리순메밀막국수는 한우와 꿩, 닭으로 직접 육수를 뽑습니다.**

금번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애월리 순메밀 막국수(100% 순메밀 자가제분 자가제면)를 4월 25일(토) 오픈하게 되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애월리 순메밀 막국수는 100% 순메밀 막국수로 반죽에 면소다, 화학첨가물, 밀가루, 전분등이 전혀 들어가지 않음을 보장하며, 언제나 찾아 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김창균 배상

**개업 일시 2020년 4월 25일(토요일)**

**개업 장소 제주시 애월 해안로 11 (제주시 애월리 2052번지)**

**문의 (064)799-4589**

- 저희 애월리 순메밀 막국수에서는 당일제분하여 주문후 반죽하고 누릅니다.
- 100% 순메밀막국수 반죽에 면소다, 화학첨가물, 밀가루, 전분등이 들어갈시에는 1억원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100% 순메밀물막국수  
100% 순메밀비빔막국수  
100% 순메밀들기름막국수

자가제분 자가제면  
T.799-4589